

16강·8강·준결승전은 '판타스틱 4' 격전장

BBC라인 호날두 vs MSN 라인…엘 클라시코의 향기가

(R, 마드리드 베일·벤제마·크리스티아누 호날두)

(L, 바르사 메시·수아레스& 바르사 출신 네이마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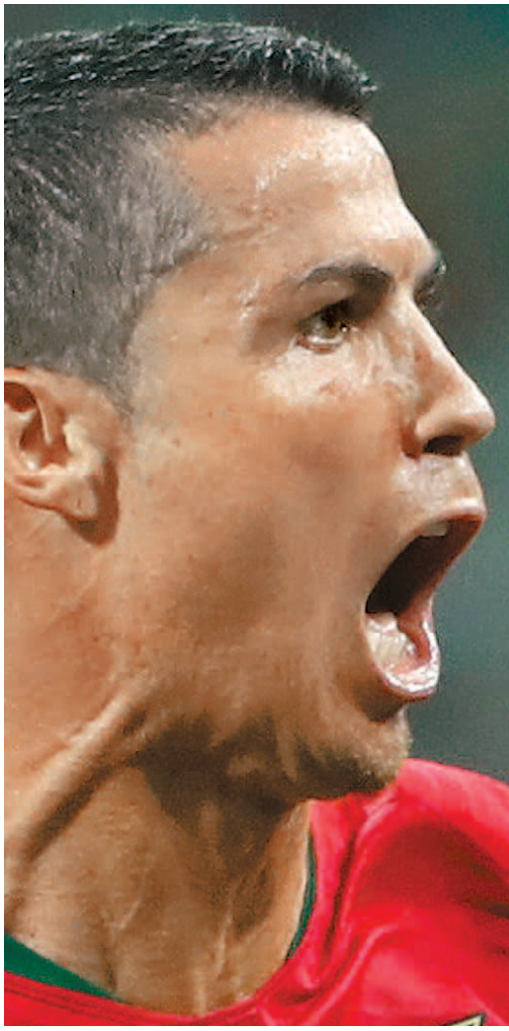
호날두 4골 폭발 포르투갈 16강 건인
16강서 수아레스의 우루과이 꺾으면
메시와 8강·네이마르와 준결승 가능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양분하는 슈퍼클럽들이다. 이들의 맞대결을 지칭하는 '엘 클라시코'는 가장 최대의 더비로 매년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두 클럽을 대표하는 스타선수들의 각축과 자존심 싸움 또한 대단하다. 2018러시아월드컵에도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 소속의 각국 대표선수들이 출출동했다.

29일(한국시간)로 16강 진출국은 모두 가려졌다. 그 중 유독 눈길을 끄는 4개국 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의 포르투갈(B조 2위·1승2무), 리오넬 메시(31)의 아르헨티나(D조 2위·1승1무1패), 루이스 수아레스(31)의 우루과이(A조 1위·3승), 네이마르(26)의 브라질(B조 1위·2승1무)이다. 28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세르비아를 2-0으로 제압한 브라질이 가장 늦게 16강행을 확정했다.

이 4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은 엘 클라시코로 연결돼있다.

현재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메시와 수아레스는 FC바르셀로나 소속이다.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소속 네이마르도 2016~2017시즌까지는 FC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다. 메시-수아레스-네이마르의 삼각편대를 각자의 이름 알파벳 이니셜을 따 'MSN' 라인으로 불렀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오랜 시간 '엘 클라시코'를 치르며 경합해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네이마르(왼쪽부터)가 2018러시아월드컵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소속 호날두는 16강전 이후 FC바르셀로나 소속 수아레스와 메시, 2017~2018시즌을 앞두고 FC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네이마르를 차례로 만날 수 있다. AP신화통신

이에 반해 언뜻 보기에도 호날두는 외로운 처지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레스 베일(29), 카림 벤제마(31)와 함께 여전히 'BBC'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베일은 웨일스의 러시아행 좌절에 따라 또다시 시

청자가 됐고, 경기장 안팎에서 이런저런 구설에 올랐던 벤제마는 프랑스대표팀에서 제외돼 이번 월드컵에 초대받지 못했다.

'BBC' 라인의 'C'는 홀로 러시아에 입성해 이제 16강전부터 차례로 'MSN' 라인을

만난다. 당장 다음달 1일 16강전에선 수아레스와 격돌한다. 이 첫 관문을 호날두가 무사히 통과한다면 8강전(7월 6일)에서 메시, 준결승(7월 11일)에서 네이마르와 맞붙을 수 있다.

조별리그에서 호날두는 4골, 수아레스

는 2골, 메시와 네이마르는 1골씩을 뽑았다. 프리메라리가에서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온 호날두와 메시-수아레스-네이마르의 일전은 러시아월드컵 16강전 이후의 주요 관전 포인트이자 흥행요소로 손색없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伊 우승에 배아팠던 히틀러 4회 월드컵 독일 유치 선언

월드컵 퍼스트 히스토리 ⑧

제3회 월드컵 브라질-폴란드 16강전(6월 5일)은 처음으로 패한 팀에서 해트트릭이 나왔다. 주인공은 폴란드의 빌리모브스키였다. 4골을 넣었다. 검은 다이아몬드라는 애칭의 브라질 레오니다스도 같은 경기에

서 월드컵 본선 역사상 처음으로 1경기 4골의 대기록을 세웠다. 최종스코어는 6-5 브라질 승리.

프랑스는 월드컵 최초로 유니폼에 등번호를 새기고 출전했다.

6월 12일 4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8강전 최고의 카드는 이탈리아와 개최국 프랑스의 경기였다. 프랑스는 홈팀으로 전통의 푸른색 유니폼을 입었다. 푸른색 대신 파시즘을 상징하는 상하의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이탈리아가 3-1로 프랑스를 누르고 개최국의 월드컵 우승 전통을 깨버렸다.

브라질-체코의 8강전은 반칙이 난무하는 전쟁이었다. 각각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해 18명이 경기를 마쳤다. 연장 끝에 1-1로 비겨 이틀 뒤 재경기가 열렸다. 월드컵 역사상 마지막 재경기에서 브라질이 2-1로 이겼다.

준결승전은 브라질-이탈리아, 헝가리-스웨덴 경기였다.

브라질의 피멘타 감독은 준결승전에서 주 공격수 레오니다스를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았다. 결승전에 대비한 결정이라고 했다. 당시는 선수가 부상당하거나 체력이 떨어저도 도중에 교체할 수 없었다. 1970년 멕

시코 대회부터서야 경기 도중 선수교체가 허용됐다. 이탈리아는 2-1로 브라질을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2개 대회 연속 결승 첫 사례다.

헝가리는 구스타프 5세 국왕의 80세 생일에 벌어진 준결승에서 5-1로 스웨덴을 격파했다. 월드컵 본선 3경기에서 무려 13골을 넣었다.

이미 올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는 헝가리와의 결승전에서 큰 경기 경험을 앞세웠다. 전반 6분 선취골을 잘 살려 4-2로 경기를 마무리 했다. 월드

컵 2연패에 성공한 비토리오 포조 감독은 2-3-2-3의 새로운 포메이션(일명 메타도)을 앞세워 올림픽과 월드컵을 2연패한 유일한 사령탑으로 축구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이탈리아의 연속 우승에 배가 아팠던 히틀러는 1942년 개최될 제4회 대회 유치를사를 밝혔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으로 스포츠 이벤트의 정치적 효과를 실감했던 히틀러는 제4회 월드컵의 주인공은 독일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계속>

김종현 전문기자 marco@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원광대학교 학교재단기업

원광제약 [주]

WonKwang Pharm Co., Ltd.

몸에 좋은 원광천년황실침향단으로

매일매일 활력을 충전하세요~

침향이란 무엇일까요?

沈香

원광 名品

천년황실침향단

무료체험 행사

*택배비 2,500원 본인부담

침향분말 5%함유!!

침향을 비롯하여 진피, 대추, 홍삼, 녹용 등

엄선된 전통원료를 한알, 한알에 담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전화주시면 정품4알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황실에서만 사용했던 귀한 침향

기력이 떨어지신 분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원하시는 분

체력이 떨어지신 분

피로가 누적된 분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

기력과 스테미너가 약한 분

무료체험 신청전화

☎1588-0359